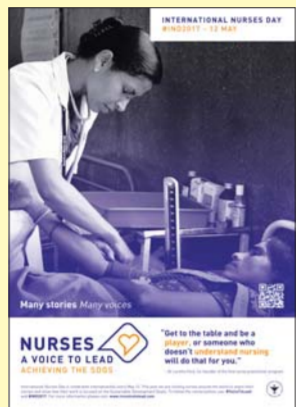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위해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라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국제간호사의 날 포스터

“간호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

국제간호협회(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는 2017년 제46회 국제간호사의 날(5월 12일) 주제를 “Nurses : A Voice to Lead,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로 정해 발표했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트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됐으며, ICN은 매년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2000~2015년)를 잇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이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다. 이중 셋째 목표가 ‘건강과 웰빙’이며,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ICN은 “SDGs 달성을 위해 간호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는 SDGs 달성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셋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은 간호사가 왜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빈곤 종식, 양질의 교육 등 다른 목표에도 간호사가 관심을 갖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가 왜 SDGs에 관심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간호사는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전문직이다. 이는 간호의 기본이며 핵심이다. 간호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 교육, 스트레스, 고용과 직업 안정성, 식품안전 등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문제다.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아동과 모성사망률 감소, 빈곤 퇴치, 어린이 학교에 보내기, 폭력 종식 등에 기여할 수 있다. SDGs는 보다 건강한 세상을 위해 간호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셋째, 변화는 가능하다. 그동안 MDGs가 기대어온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등 많은 변화를 보여줬듯이, 앞으로 SDGs를 통해 새로운 진보와 발전이 계속될 것이다.

넷째, 우리 모두의 건강에 관한 일이다. SDGs는 저소득 국가의 국민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며, 간호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SDGs가 달성되면 가족, 지역사회,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향상된다.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상실무, 지역

사회, 국가 보건정책, 국제적 선언과 합의 등을 통해 보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리더십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책무 및 시민의식과 관련 있다. 간호사는 인간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하는 전문직 책무와 윤리적 책무를 갖는다.

2. 간호사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람들, 지역사회,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고 협상해야 한다. 다른 전문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학제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3. 간호사는 정책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며, 주도로 어젠다를 만들고, 정책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간호사가 참여했을 때 보건의료는 안전해지고, 질이 높아지며, 접근성이 좋아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 이슈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있는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각국 간호협회가 전문직단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 간호협회는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수단이며 구심점이다. 간호협회가 움직여야 간호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다.

5.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유용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다.

한편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관련 문은 ICN 홈페이지(www.icn.ch)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신규 참여 및 병동 확대 의료기관 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과 병상의 균형적 확대와 사업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도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설개선비 지원대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2016~2017년도에 신규로 지정을 받은 기관과 2013~2016년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올해 병동을 추가로 확대하는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공공병원은 최대 1억원)이다. 기존 참여 기관 중 올해 병동을 추가 확대하는 기관의 경우 기존에 지급된 지원

금액을 포함해 한도액 내에서 지원한다. 총 50억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며, 공공병원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시설개선비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전통침대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전통침대가 100% 구비된 경우 스트레치 카트, 낙상 감시센서 등 환자안전에 관한 추가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시설개선비 지원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033)736-4310~3.

김숙현 기자 shkim@

간협, 보수교육 강사교육 완료

대한간호협회는 올 한 해 전국에서 간호사 보수교육을 담당할 강사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7년도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인 △당뇨병 환자간호(2회) △소화기계 환자간호(2회) △응급환자간호-질환 중심으로(3회) 교육과정 총 7차례 진행됐다. 60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당뇨병 환자간호’ 프로그램은 3월 16~17일과 30~31일 실시됐다. 당뇨병의 이해·병태생리·최신지견, 자가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사법, 당뇨병성 만성합병증, 당뇨병의 효과적인 자가관리, 당뇨병의 식사요법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소화기계 환자간호’ 프로그램은 3월 21~22일과 4월 4~5일 열렸다. 소화기계의 해부·생리·최신지견, 위장관계 질환의 내과적·외과



적 중재 및 간호, 간질환 환자의 간호, 폐담도계질환 환자의 간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응급환자 간호-질환 중심으로’ 프로그램은 3월 23~24일과 28~29일, 4월 6~7일 개최됐다.

응급환자의 간호과정과 초기인식, 순환기계 응급환자 간호(심근경색 중심으로), 호흡기계 응급환자간호(천식·COPD 중심으로), 내분비계 응급환자 간호(당뇨병 중심으로), 신경계 응급환자간호(뇌졸중 중심으로)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김숙현 기자 shkim@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7.8% 달성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참여율은 2012년 25.7%, 2013년 27.7%, 2014년 31.7%, 2015년 34.5%, 2016년 3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달성 목표 37.0%를 초과달성했으며 올해 4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442개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여성참여율이 37.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5년 대비 3.3%p 증가했다. 전체 위원 7725명 중 2805명이 여성이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이 위촉될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기관은

18곳이다. 2014년 9곳, 2015년 10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56.6%), 국가인권위원회(53.6%), 여성가족부(52.5%), 국방부(51.9%), 중소기업청(51.9%), 금융위원회(48.2%), 관세청(47.0%), 식품의약품안전처(45.2%), 특허청(45.2%), 농림축산식품부(44.8%), 교육부(43.8%), 법제처(42.9%), 통계청(41.7%), 공정거래위원회(41.7%), 국제청(40.8%), 농촌진흥청(40.7%), 법무부(40.4%), 기상청(40.0%) 등의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35.7%로 42개 중앙행정기관 중 27위를 기록했다. 2015년 대비 2.6%p 증가했으나, 순위에서는 21위에서 27위로 여섯 계단 하락했다.

강원의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여성비율 40% 달성 기한 마지막 해인만큼 모든 위원회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대한간호협회에서 드리는
특급 복지 혜택!
20,000*
포인트를 드립니다.



지급대상	2017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지급내용	회원복지포인트 20,000포인트
지급시점	회원등록 시(중요정보 DB 등록시점)
유효기간	등록시점으로 부터 3년
사용방법	넬스라이프(www.nurselife.or.kr) 접속 → My KNA 에서 확인 → RNshop에서 6,000여가지 다양한 상품 구매가능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국 1566-3137



POINT
꼭 사용하세요.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4년도 분 회원복지포인트가
2017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소멸됩니다

포인트 미사용 회원분들은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일자 전에 포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ww.nurselife.or.kr | ☎ 1566-3137



래어달메디컬 기술지원 프로그램

구입하신 장비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드립니다



- 시뮬레이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미작동과 장비 운영 기술은 시뮬레이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고객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검증된 기술지원서비스로 고객의 장비에 관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관리 체계로 지속적인 환자 치료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시뮬레이터 보증 기간 연장**
5년 구매 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소모품 교체 패키지**
대부분의 주요 소모품(PM) 혹은 가장 빈번히 소모되는 제품 교체(PM Lite) 중 택 1 가능
- 종합 장비 평가 시스템**
무상 정기 점검 서비스 시스템 운영(년 2회)
- 최우선 전문 수리**
24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최우선 전문 수리(24시간 이내 방문)
- 무상 대여 서비스**
학기 중 장비 입고 수리 시 무상 대여 서비스
- 예산 편성 계획표**
지속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계획표 제출

www.laerdal.com

래어달메디컬코리아(유)

Tel. (02) 6714-8800